

## “ 병원경영관리 정보의 보고(寶庫)로 재탄생 ”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72년 4월 27일 병원경영 전문학술지인 ‘병원협회지’를 창간한지 34년 만에 지령 30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국내 병원(경영) 관련 전문학술지가 전무한 상황에서 탄생한 대한병원협회지는 전국 병원인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속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명실상부하게 병원과 병원인들을 위한 전문 잡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나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지는 의료제도, 건강보험, 병원경영 등에 관한 논단과 연구논문을 게재해 병원(운영)에 꼭 필요한 앞선 정보를 전달하여 병원경영자 및 종사자들의 친근한 벗이자 정보의 보고로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협회지 창간 5년 후인 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되고 12년이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기간만인 89년 전국민의료보험시대를 열어 의료의 대중화가 가속화되고,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의료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변혁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추세에 부응하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병원 경영자 및 구성원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알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령 300호를 맞이하기까지 한 세대를 넘는 36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며, 의료보험이 시작된지 30년 가까이 되었어도 여전히 적정수가문제를 위시한 의료계의 현안은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글 · 유 태 전 |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병원협회는 선진의료보장 구현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선 한국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경영 정상화(활성화)가 선결과제라는 인식아래 대정부 대국민 대언론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300호 발행을 기점으로 병원협회지는 우리나라 최고 전통의 병원경영관리 전문 학술지로 서 지면을 꾸준히 쇄신해 나가고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참신하게 개선해 나감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탈바꿈해 나갈 것입니다.

때마침 정부는 21세기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는 의료산업을 고부가가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진흥시켜 나갈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협회지도 의료산업 육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육성정책을 견인해 나가는데 아낌없이 지면을 할애할 것입니다.

그 동안 병원협회지 지령 300호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전임편집위원과 현 윤건일 협회지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무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협회지가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독자제현의 더욱 큰 관심과 애정,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KHA**